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68호 발행일 : 2004년 2월 1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제직수련회, '주님의 가족 · 주님의 손발' 주제로 다음주일 (8일 - 9일) 열려

2004년도 제직수련회가 "주님의 가족 · 주님의 손발"이라는 주제로 2월 8-9일 양일간 본교회 중예배실에서 열린다. 8일(주일)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9일(월)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며, 올해 표어인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와 수련회 주제인 "주님의 가족, 주님의 손발"에 맞추어 교회와 교구, 사역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특강과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이번 제직수련회에는 모든 제직이 참여하며,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각 위원회별 임역원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수련회가 열리는 이틀동안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식사는 권사회의 손길로 준비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해 자모실과 탁아방을 운영한다. 온 교우들도 제직수련회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로 조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청소년 집중 사역의 비전팀 출범

주님의교회 비전팀의 첫모임이 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었다. 팀장 권오승 장로를 중심으로 이회숙, 손천숙 권사, 동현수, 이종은, 박대길, 박지원, 박용운, 신양금 집사, 정영환, 윤은성 목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별히 담임목사가 제시했던 청소년사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등부부장인 박대길 집사(011-493-6616)가 간사로 수고하기로 했다. 비전팀의 두 번째 모임은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주님의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담임목사를 초청하여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가진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부 1일수련회

전화상담부는 3월 4일(목) 『상담공동체만들기』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진다. 총무인 정영숙 집사는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잘 먹고 즐겁고,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한다. 윤덕영목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한 해의 사역의 방향을 세우고 부원들 간에 성령 안에서의 만남(encounter)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상담부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힘찬 중보기도 사역

2월 3일 오전 11시 교회 5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사역팀의 팀장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다. 중보기도사역팀은 작년에 두 번에 걸친 중보기도사역자학교를 통해서 구성되었는데, 중보기도사역자학교를 수료한 후에도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해보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해외선교지원부, 안산 외국인 교회 방문]

인종,국경을 넘은 은혜로운 말씀시간

민족의 명절은 타민족들에게는 소외로 다가온다. 모든 상점과 시장이 구경을 새기 위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이들에게는 계속된 연휴 기간 동안은 먹는 것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해외선교위원회 소속 해외선교지원부를 중심으로 찬양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지난 구정 연휴가 있던 1월 23일 금요일, 안산에 있는 소금밭교회에서,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권오승 장로님의 기도와 담임목사님의 영어 설교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혜를 받고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작은 음악회에서 찬양대와 청년부의 특송은 피부와 민족을 뛰어 넘어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점심과 다과를 나누며 가진 교제의 시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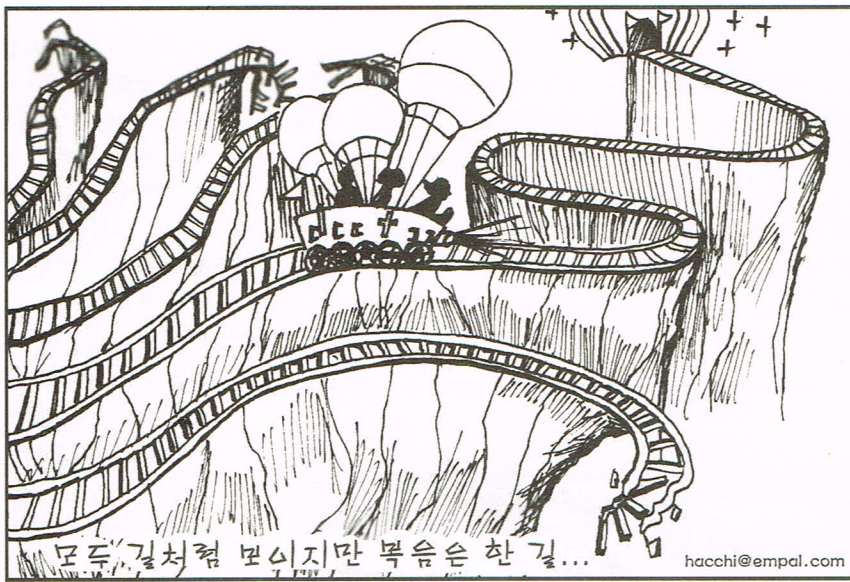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2:1-10절 말씀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복음과 만민을 위한 복음을 선포했다.

바울사역의 열매를 본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예언과 위로를 잘하는 사도”라는 의미이다. 디도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는데, 바울의 이방 선교의 구체적인 열매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헬라인 디도 역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이다. 즉 유대인의 상징이며, 모세 율법의 상징이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단호히 거절했다.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있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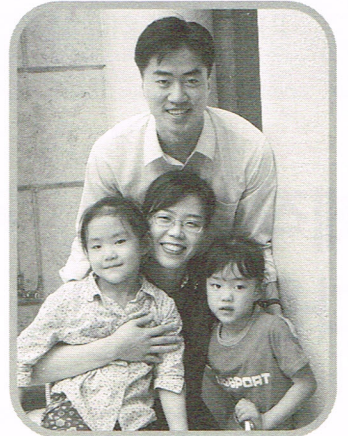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이다. 다만, 그들이 전파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 문화와 인종이 달라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 없다.



주님을 1호로 모시는 2호, 이호 목사

주님의 교회로 부임한 이호목사의 가족은 이해원 사모와 은채(8), 은서(6) 두 딸이 있다. 이름이 이호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



고 앞으로도 결코 1호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는 어렸을 때에 적잖이 놀림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1호로 모시는 2호라면, 그 2호가 바로 이호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1호로 모시는

2호는, 주님 바로 다음이 되기 때문에, 서열로 따지면 두 번째 즉 Number Two가 되기도 한다며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올해 음악위원회를 섬김으로 매주일 1, 2, 3부 찬양대가 예배 입장하기 전에 찬양대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기 전마다 힘차게 할렐루야로 인사한다고 찬양대에서는 이미 “할렐루야!” 목사로 소문이 났다. 왜냐고 물으니 “할렐루야”를 너무 좋아해서라며 웃음으로 대답했다. 또한 해외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 이목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모이면 찬양, 흠양이면 선교를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각오와 열의를 보여 주었다.

성경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신학원 선교부

5-6명의
권사님 집사님
이 2003년도 정신
여고 2학년 4반 37명
성경과목 시간에 월1회 아이

들의 성경어머니가 되어 섬겼다. 영락교회가 시작한 성경어머니 사역을 지난 해 우리 교회가 2학년 4반을 맡아 섬기게 되었다. 성경어머니라는 호칭에 대하여 이창성 권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엄마는 잔소리가 연상되고, 선생님은 가르친다는 인상이 들잖아요. 성경어머니는 가깝고 편안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신앙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매월 한 번씩 김필레관(대강당) 2층 수련실에서 성경어머니 한 분에 여학생 5-6명이 둘러 앉아 함께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데, 성경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성경어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품어주며 격려하고 기도하며 마치곤 하였다. 사역에 열매로 신앙을 갖지 않은 학생의 85%가 결신하거나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신여중과 여고에서 성경어머니를 더 많이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올 해는 4개 반을 섬길 4개의 사역팀 30여명이 구성되었다. 이창성 권사는 “2005년도에는 가능하면 정신여고 2학년 15개 반 모두를 우리 교회에서 성경어머니로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2006년도에는 정신여중까지 성경어머니를 파송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청소년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해본다.

여학교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예민한 청소년 세대들이다. 때론 가정도 학교도 친구들도 그들의 편이 되어 함께 하는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외로웠으며 홀로였다. 학교에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학교와 교회의 연결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어른, 무조건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어른,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기도로 도움을 줄 영적 보호자의 필요성이다.

시범으로, 2001년 정신여고 2학년 중에 1개 반을 교회와 연계하였다. 성경 공부 시간 중 매월 1개의 수업시간을 교회의 어머니들의 시간으로 할애하였다. 학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호칭도 쓰지 않기로 하였다. 가까우며, 편안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기로 하였다. ‘어머니’가 학생 한 명씩 차례로 품에 안고 격려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맡겨진 학생들을 팔처럼 아끼고 기도하고,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 학기를 끝낸 후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다. 신앙을 갖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 약 80%가량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그 이유의 80%가 ‘어머니’들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2003년도에 드디어 주님의교회 학원 선교부에서 7명의 ‘어머니’들을 정신여고에 파송하여 2학년 15개 반 중에 1개 반을 맡게 되었다. 나머지 14개 반의 영락교회 ‘어머니’들과 함께 정신여고 딸들을 만났다. 주님의교회 ‘어머니’들의 정신여고 ‘딸’들은 2학년 4반이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이르렀다. 2학년 4반 37명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었다.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와 ‘딸’들의 서로 돌봄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별회를 가졌다.

2004년도가 되었다. 정신학원 선교부가 정신학원 선교에만 전념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원 선교부에서 분리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의 동참으로 정신여고 2학년 15개 반 중에, 우리 교회에서 4개 반을 담당 할 25명의 ‘어머니’를 정신여고에 파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락교회 ‘어머니’들이 11개 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자녀를 둔 여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2005년도에는 가능하면 정신여고 2학년 15개 반 모두를 주님의교회 ‘어머니’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06년도에는 정신여중에도 ‘성경어머니’들을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린다.

정신학원 선교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들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여고 신입생들은 [밀알 수련회]를 한다.
- 2) 정신여고 2학년을 대상으로 [성경어머니]를 파송한다.
- 3) 정신학원 선생님들과 주님의교회 교우들과의 친선 모임이 있을 때 필요한 준비한다.
- 4) 기타 정신학원 상담실 혹은 교목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는다.

도시농촌에 근본적인 할 일 찾기로 결의

1월 11일 2부 예배 후 국내선교부의 도시선교부와 농어촌부의 모임이 있었다. 정희성 목사의 기도와 정재경 장로의 사회로 2004년 첫 상견례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금년도 봉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도시농촌선교부가 해온 활동들은 이렇다. 미자립 농어촌교회 18개 곳에 정기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 11개 미자립 도시교회에 월 30만원씩 정기지원을 했다. 또 농어촌교회 학생들을 초청하여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 여름에 강타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도시 농어촌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 등을 해왔다. 이번 모임에서 나온 사항은 앞으로 물질적 지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을 바로 알아 그들이 믿음생활과 전도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찾아 열심히 봉사하자는 것이다.

참석한 부원들 중에는 농어촌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몇 분 있어 금년도의 도시, 농어촌 봉사부의 활동은 매우 기대가 되는 바이다.

[통합아동부]

초등학교 전학년이 드리는 예배 함께 세워요

통합아동부는 2부 예배 시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004년에 신설된 부서다. 예배시간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이다.

이 예배의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 율동, 놀이와 다양한 게임을 통하여(연극, storytelling 등)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동감 있고 변화 있는 예배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공급될 필요가 있다. 특특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2-3명 당 교사 1명이 필요하므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배는 3월부터 드릴 예정이다.

[새가족 사역팀]

새가족사역팀 3월부터 드디어 출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온가족의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이듯, 교회에서도 새가족은 온 교우의 사랑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출발한 팀이 바로 새가족사역팀이다. 이들은 새가족이 교회공동체와 구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잘 정착하도록 돕고, 신앙과 교회생활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3월부터 정식으로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며, 현재 새가족 사역팀내 새가족의 등록과정을 담당하는 등록팀, 등록된 새가족을 새가족 환영실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팀, 새가족의 구역정착을 돕는 바나바사역팀, 새가족성경공부반을 통해 섬기는 교육팀, 행정사항과 새가족환영행사 등을 관장하는 행정팀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다.

소리없는 구제사역, 국수대금

매주일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주방 봉사부에서 최근 국수비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이유는 국수대금이 전액 구제비로 책정되어 사용되는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국수대금은 한 그릇에 500원이 기본이며 각자 더 내시는 분도 있다.

현재 국수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원자재값은 교회예산에서 전액지원하고,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어진다. 토요일 재료준비부터 주일 새벽 5시 국수국물을 만들고, 각각의 봉사부원들이 시간대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국수배분과 정리에 참여한다. 주방봉사는 교인을 섬기는 것과 구제비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 교인들의 인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구제에 대한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주보광고도 몇 번 했다. 국수를 먹는 것과 주방봉사는 우리교회의 구제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도서부의 새해다짐]

‘하나님 사랑, 책 사랑’

도서부의 2004년도 첫 번째 전체모임이 1월 11일 오후 1시에 동원음식점에서 개최되었다. ‘하나님 사랑, 책 사랑’을 표어로 한 이날 모임에는 전체 부원 40명 중 27명이나 참석하여 보기 드문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자원봉사 연결 데스크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새로이 참여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

문화홍보위원장 최창섭 장로의 기도를 시작으로 점심을 나누며 진행된 모임은 자연스럽게 부원 상호간의 자기소개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김익수 부장집사로부터 2004년도 봉사내용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새해 목표는 작년에 개관한 도서실의 열람시설과 도서를 보다 확충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도서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거나 매달 두 번째 주일에 열리는 좋은 책읽기 모임에 참여하려는 교우들은 도서부 총무인 윤복신 집사(02-419-8701)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시흥 베다니 마을에서

아래의 글은 무의탁 노인, 장애인, 미혼모, 고아, 노숙자 등 150여명이 기거하는 시흥 베다니 마을에서 온 편지이다. 이곳으로 1월 18일 나눔의 물품을 설날을 맞이하여 보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몇 해 전, 들리는 목소리부터 예상치 않다고 생각하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시다.

그때 당시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웠던지 찬바다에 각대기 깔고 그분의 공활하심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에 떠 있는 물 별들의 빛이 마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눈빛으로 느껴질 때 가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뜨거움으로 복받치곤 했었지요.

최 국장님(장로님)께서 작은 것이라며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따뜻한 말씀과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공급받게 되었지요.

블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은혜 감격하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역이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여기며 영혼의 불을 끄지 않게 해달라는 눈물의 고백을 드렸지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복지선교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부요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베다니 마을 강선희 전도사

[성도간증]

나를 변화시킨 작은 중보 기도 모임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몇몇 성도들끼리의 단합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한 기도 모임이 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가지는 이 모임은 다들 개인적인 문제와 소망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간구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 작은 자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생활을 달라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어주었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거의 바닥이었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때였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는 것은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처음 기도회에 참석하던 날, 그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 때 같이 참석했던 자매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8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내 기도 제목을 말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미안함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털어놓게 되었다. 기도 모임의 친구들은 그 길고 많은 얘기들을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고,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었다. 한 두 번 정도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작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번씩은 죽 그래왔다.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첫째로 크게 변화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은 평안과 기도생활이 호흡하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겠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나 오랜 방황과 불안 끝의 평안이기에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모른다.

둘째는 기도회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내 얘기만 온통 할 만큼 나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도 않고 다른 자매의 기도 부탁도 들어줄 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게 되면서 나만이 인생의 절고를 겪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기도모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나의 신앙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성도

{교회소식}

1. 신앙사경회

2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오후7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신앙사경회가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광염교회의 조현삼목사가, 수요일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강사를 맡습니다. 조현삼 목사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단장으로 수해지역 봉사등에 헌신하며 '감자탕교회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광 Gloria"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앙사경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모실과

탁아방이 준비됩니다.

2. 중보기도사역팀장 모임

2월3일(화) 오전11시에 중보기도실(5층)에서 팀장모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팀장으로 활동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3. 비전팀 모임

2월7일(토) 오전10시에 대회의실(4층)에서 비전팀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3대비전 중 하나인 청소년집중사역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뜻을 함께 하

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좋은책읽기 모임

2월8일(주일) 11시에 청년부 2집회실(5층)에서 모입니다. 먼저 선정된 도서를 읽고 오셔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읽을 책은 맥스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가능)

5. 친교실 봉사자 모집

1층의 친교실을 주중에도 열어 차와 음악이 있는 아늑한 대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일에 3-4시간씩 주1회 정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신임지휘자}

올해 3부 예배 살롬 찬양대를 이동훈 집사가 지휘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졸업 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Temple 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박사를 취득했고, Westminster Choir college를 수료했다. 귀국하여서 Opera [백범 김구와 상해임시정부]등 많은 작품 발표 하였고, 한국 작곡가 협회 이사로 또 현재 단국대학 음악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소망교회에서 4부 예배 지휘자로 섬겼다. 이동훈 지휘자를 통하여 앞으로 3부 예배 찬양대가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 제직수련회 세부사항 안내

당회원, 교구사역자, 제직회 각부서장 및 부서원, 안수집사, 권사, 교회학교교사, 찬양대원, 찬양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세부일정 및 교구모임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정 안내

2월8일	시간	내용	담당	장소
(일)	4:00 - 4:10	찬양과 기도	김현령 전도사	
	4:20 - 5:20	특강1.주님의가족	문동학 목사	중예배실
	5:20 - 5:30	기도회	문동학 목사	
	6:00 - 6:50	식사	권사회	식당
	6:50 - 7:40	교구별모임	교구 목사	아래참고

2월9일	시간	내용	담당	장소
(월)	6:30 - 7:30	식사	권사회	식당
	7:30 - 7:40	찬양과 기도	이호 목사	중예배실
	7:40 - 9:00	특강2.주님의손발	문동학 목사	

교구모임 안내

교구	교구목사	장소	교구	교구목사	장소
1	정영환	중예배실	5	우동윤	찬양대실
2	이창현	소예배실	6	김성관	유치부실
3	정희성	초등부실	7	이호	소년부실
4	윤덕영	제3집회실			

[의료선교부 새해맞이]

자원봉사팀과 연계하는 의료봉사 활동

이호 목사, 권오승 장로, 서준규 부장등 새로운 운영진으로 짜여진 주님의 교회 의료선교부 41명이 첫 모임을 18일 주일 오후 1시에 가졌다.

최창섭 장로의 지도로 시작하여 서준규 부장이 2004년도의 의료선교부 사역 계획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대로 매월 첫째주일은 구의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매월 둘째주에는 안산 외국인센터와 안산 부곡동에서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그외에도 8월 중 1회 단기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에 단1회 시행에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주님의 교회 성도 대상 건강교육 및 점검도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매분기마다 1회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외 활동은 예년처럼 캄보디아 단기선교, 몽골 단기선교등의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고, 이호 목사의 폐회 기도 모임을 마쳤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3.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6.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